



Analyst 이달미 · 02-3773-9952 · talmi@sk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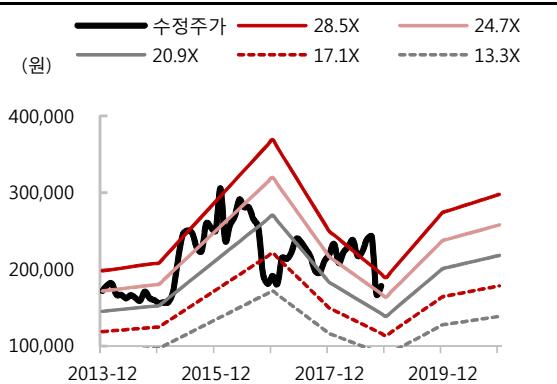
# Issue Comment

- ✓ 레이저티닙 앤센으로 기술수출 계약 체결
- ✓ 총 마일스톤 규모 1 조 4 천억원대
- ✓ 계약금 약 500 억원

## 유한양행 '레이저티닙' 앤센으로 1 조 4 천억원대의 기술수출 계약 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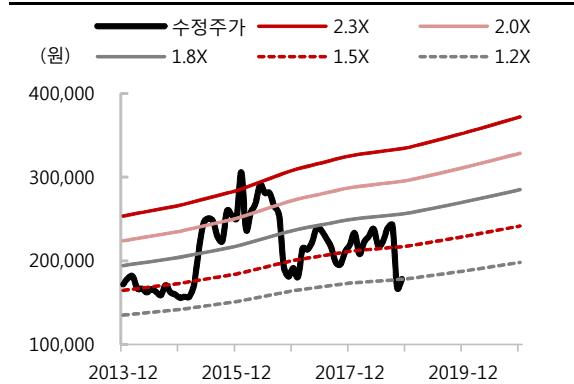
- 유한양행은 오늘 표적 폐암치료제 '레이저티닙'을 앤센으로 기술수출을 발표함.
- 총 마일스톤 규모는 1 조 4 천억원대로 계약금은 약 500 억원, 반환의무는 없음.
- 이번 계약금은 미국의 반독점개선법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12 월 중으로 들어올 예정.
- 계약금과 마일스톤의 40%는 오스코텍과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 배분할 예정.
- 이번 계약으로 앤센은 레이저티닙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개발, 허가, 생산, 상업화를 진행 하기로 하였음.
- 레이저티닙은 올해 임상 2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.
- 출시 이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'타그리소'와 경쟁이 될 전망.
- 유한양행은 지난 어닝쇼크 발표 이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시현하였는데 이번 기술수출로 주가 반등이 예상됨.
- 이 치료제를 유한양행으로 기술수출한 오스코텍 역시 주가반등 예상.
- 이번 기술수출은 한미약품 이후로 사상 최대규모의 기술수출로 제약/바이오 업체의 주가 전반에 긍정적일 전망.

유한양행의 PER 배드차트



자료 : 데이터가이드, SK증권

유한양행의 PBR 배드차트



자료 : 데이터가이드, SK증권